

##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가난하고 병든, 거리의 사람들의 안식처, 가평 꽃동네

### 얻어먹을 힘조차 없는 이들을 위해

**“어**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입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 그렇다. 내 힘으로 구걸이라도 할 수 있다면 삶을 이어갈 수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때때로 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갈 곳도 없이 거리에 쓰러져 심신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얻어먹을 힘조차 없는 것이다.

행려병자·알코올 중독자·신체 장애인·노인·미혼모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들을 꽃이라 여기며 사랑으로 보살피고,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있다.

▼ 지난 7월 꽃동네 식구들은 무료 건강진단을 받았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가 맡아 실시)

꽃동네. 가족 한사람 한사람을 꽃으로 생각하고, 이들을 통하여 사랑의 꽃이 활짝 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꽃동네가 바로 그곳이다.

1976년, 오용진신부가 음성군 무극천주교회 주임신부로 부임해서 최귀동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꽃동네의 역사는 시작된다.

일제 때 강제 징용을 갔다가 정신질환에 고향압, 동상까지 겹친 최귀동 할아버지는 고향인 음성에 돌아온 후, 자신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힘없고 병들어 죽어가는 다른 거지들을 위해 30년을 하루같이 밥을 얻으러 다녔다.

오용진 신부는 최할아버지의 헌신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할아버지와 함께 사랑의 집을 짓기 시작해 마침내, 1976년 11월 15일 문을 열었다. 그후 전국의 걸인들이 모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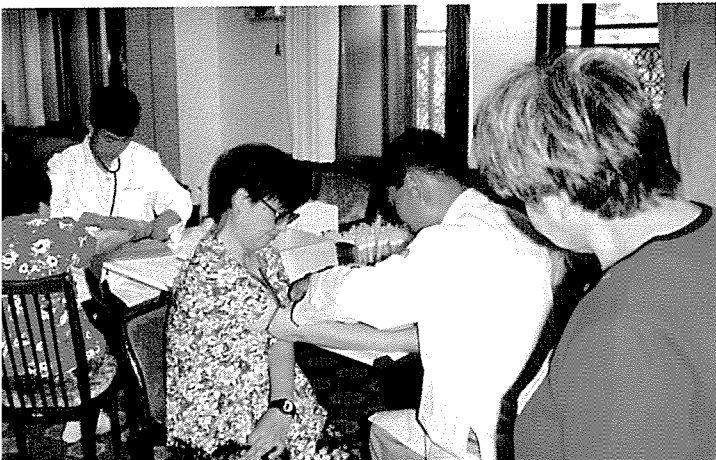
들어 이들을 위한 요양시설의 필요성을 느낀 오신부의 노력으로, 마침내 1983년 9월 8일 꽃동네 본동이 준공되었다.

그동안 꽃동네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18명의 걸인으로 시작된 이래, 정신병·결핵·노인·알코올중독자·심신장애인 요양원이 건립되었고 죽음을 앞둔 가족을 위한 구원의 집이 만들어졌으며, 1989년에는 가평꽃동네가 설립되었다. 지난해부터는 거창꽃동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가족도 3천 6백명이나 된다.

###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현재 1천2백여명의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가평꽃동네는, 조용하고 맑은 산자락에 넓게 위치하고 있다.

가평꽃동네의 김인철 요한 신부는 가족들의 구성을





▲ 김인철 요한 신부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고 표현한다. 갓난 아이부터 임종을 앞둔 노인까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 꽃동네 가족들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고통을 당하며, 때로는 구걸을 하고 또 더러는 그것마저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가 이곳으로 들어 온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바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안구나 장기를 기증해 어둠에서 빛을 보게 하며, 사체를 기증해 의학 발전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다시 태어나고 세상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 “행려병자를 보시면 연락 바랍니다”

“늙은한 살림은 아니지만, 의지할 곳 없이 굶고 병들어 가는 이들이 함께 모여 나눌 수 있으므로 그 또한 기쁜 일이며 주님의 은총입니다.”라는 김인철 신부는, 행려병자나 의지할 곳 없는 노인·장애인들이 있다면 연락해 달라고 당부한다.

꽃동네에 입소하려면 몇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입소의뢰서·제적부증명·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생활보호자증명원·전문의 진단서·추천서 등이 각 한통씩

필요하다(자세한 내용은 꽃동네로 문의).

전국 어디든지 연락을 주면 달려가지만, 그런 사람을 꽃동네까지 데려다주면 더없이 고맙겠다고. 죽어가는 행려병자가 있다면, 꽃동네 구급대가 직접 달려간다.

### 회비 1천원씩이 모여 큰 사랑으로

현재 꽃동네의 운영은, 전국에서 80만에 이르는 후원회원이 보내주는 회비와 생보자에게 지급되는 국가지원금, 도·군의 지원, 그리고 뜻있는 독지가의 후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후원을 원하는 사람들은 월 1천원 이상의 회비를 지로나 자동이체 등으로 내면 된다.

### 거창 꽃동네 건립 추진 100만인 서명운동

그런데 요즘 꽃동네에 고민이 생겼다. 1994년부터 추진해오던 경남 거창 꽃동네 건립에 몇가지 어려움이 닦친 것이다. 꽃동네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분들의 반대에 부딪쳐 있는 거창 꽃동네의 설립을 위해 현



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거리를 떠도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은 그 지역이나 국가적으로 무척 의미있는 일이 아닐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이런 저런 일들로 “정말 힘드시겠다”는 말에,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며, 오히려 가족들을 통해 배우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대답하는 김인철 요한 신부의 편안한 웃음에서, 사랑의 실천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인가보다 하고 생각해 본다.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며 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것이라 고……. [Z]

### 이런 사람 보셨나요? 연락주십시오

# 의지할 곳 없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분들이 길가에 서, 다리 밑에서 굶어죽고 얼어죽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꽃동네는 그런 분을 기다리며 찾고 있습니다.

또한 행려병자를 보시고 연락해 주시면 꽃동네 구급대가 전국 어디든지 찾아가서 모셔옵니다.

- 연락처 : 음성 (0446)8790-180 / 가평 (0356)890-101  
서울사무소 (02)272-0101